



6월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은 리처드 기어가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리처드 기어는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자승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사진=박재완 기자

# 佛子 리처드 기어 한국을 찾다

21일 조계사 참배 이어 22일 사진전 '순례의 길' 오프닝 등서 한국불교 흠뻑 체험

영화 '사관과 신사' '귀여운 여인' 등에서 최고의 로맨티스트로 찬사를 받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한국을 찾았다.

리처드 기어의 이번 방한은 지난 30여 년간 티베트, 아시아 불교 국가들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모은 '순례의 길'을 국내 팬들에게 선보이기 위함이었다.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불자인 리처드 기어가 찍은 사진 64점과 뜻을 같이한 세계적인 사진작가 24인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6월 20일 한국땅을 밟은 리처드 기어는 22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진전의 의미와 한국불교에 대한 느낌, 티베트 독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리처드 기어는 기자회견에서 "영화와 사진은 삶과 세상을 필름에 담은 작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세상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이성이나 감성에서 비롯된다"며 "사진의 이미지들은 3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티베트와 불교 국가들을 순례하며 만났던 승려, 형제·자매들을 떠오르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티베트 스님들 아직도 고문당해"

리처드 기어는 이날 티베트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정치적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꿔 티베트 자유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당초 주최사인 CDI측이 사전 공지로 티베트 등과

관련된 정치적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해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자 스스로 발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장내가 술렁였다.

리처드 기어는 "198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번 전시에 걸린 사진 중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진이 있다. 티베트의 한 마을에 있는 그림을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은 티베트 승려들이 중국인들에게 고문당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 티베트에 많은 관심 가져 달라 한국불교도 사진에 담고 싶다

티베트 여승들이 중국 당국자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그림을 찍은 사진을 언급한 그는 "중국 당국에 의해 여전히 티베트 승려들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후 1993년에 유일하게 중국 정부가 내가 입국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티베트에 머무름 당시 3명의 여자 승려를 만났다. 그들은 티베트에 있는 중국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이었다"며 "그 여자 승려들은 내가 과거에 찍었던 그림과 똑같은 경험을 겪었음을 나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리처드 기어는 "그래서 그 그림을 찍은 곳에서 3명의 승려들을 세워 놓고 사진을 찍었다"며 "그 사진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내 마음과 시정,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 "아시아는 순수성이 매력, 한국인 Smart"

리처드 기어는 "2500년 전 히말라야에서 시작된 티베트 불교는 그 순수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서 티베트 불교의 매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리처드 기어는 불교를 공부하며 느꼈던 선불교와 한국불교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리처드 기어는 "처음 불교를 접한 것은 일본의 Zen(禪)불교였다. 한국의 선불교와 매우 비슷하다. 6세기 한국에 들어온 불교가 한국사회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리처드 기어는 이어 "달라이 라마 곁에는 한국인 수행자들도 많이 있었다. 달라이 라마는 이들을 비롯해 한국인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얘기 했었다. 몽고를 찾으며 경유지로 한국을 자주 들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를 사진으로 담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한국을 찾아 불교문화를 사진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 체험해 기쁘다"

리처드 기어, 한국불교문화 접하고 감탄 연발



리처드 기어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탁본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리처드 기어는 이번 사진전 참관에 앞서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한국불교를 체험했다. 이날 리처드 기어는 서울 조계사를 참배한데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선불교'를 주제로 환담했다. 자승 스님은 리처드 기어와 부인 케리 로웰, 아들에게 단주와 향로, 텀플스테이 옷 등을 선물했으며 리처드 기어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선물했다.

리처드 기어는 "선불교로 불교를 처음 접했는데, 한국불교도 선불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불교를 체험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하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에 불교가 담겨 있었다"고 말을 건넸으며 리처드 기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렸다. 스님이 강아지 하치에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의 시작 장면은 마치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장면같았다"고 화답했다.

리처드 기어는 환담에 이어 불교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탁본을 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으며, 자승 스님과 텀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에 자리잡은 사찰음식전문점 '공'에서 한국전통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했다.

### 리처드 기어의 사진전 '순례의 길' 무엇을 담았나?

40여 편이 넘는 영화 주연을 맡으며 전 세계 영화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리처드 기어. 그가 전 세계를 돌며 사진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는 화려한 은마의 스타 이면에 지구상에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1991년 '기어 재단' (The Gere Foundation)을 설립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히 나서고 있다.

기어의 사진은 그가 티베트와 티베트 망명인 거주지 등을 여행하며 촬영한 것으로 때 묻지 않은 히말라야 지역의 자연풍경과 이주해 삶을 꾸려가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Vermeer)의 영

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기어는 베르메르가 보여준 부드러운 빛의 움직임 사진을 통해 표현하려 한다. 장시간 노출을 이용한 촬영기법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정적인 색감이며 흔들리고, 뿌연 안개처럼 표현된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대상의 본질을 포착해 보여주곤 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난 순례자의 입장이 되게 한다.

또 사진작가 24인이 참여한 컬렉션 <티베트 포트폴리오>는 현대 사진사에서 주요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 작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패션 사진 거장 헬무트 뉴튼, 스티븐 마이젤을 비롯해 초현실주의 사진의 대명사 제리 슐츠만, 랄프 김슨 등의 대표작품들이 그것이다.

My Pride Dongguk!

| 동국대학교 혜초원정대는 총 4년에 걸쳐 중앙아시아와 인도대륙을 횡단한다. |



## 동국대학교 혜초원정대

2011년 7월, 19박 20일의 실크로드 대장정

# 혜초원정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 혜초 불굴의 도전정신, 글로벌 프런티어 리더십을 배운다.**

미지의 세계에 두려움 없는 도전정신!  
구법(求法)을 위해 목숨까지 건 뜨거운 열정!  
나이지 않는다면 얻을 것이 없다.  
My Pride Dongguk!



지도 표기 - 2011년 1차 횡단 루트



■ 2012학년도 신입학 수시 1차 모집

서울캠퍼스 원서접수기간: 2011. 8. 1(월) ~ 8. 5(금) 17:00

홈페이지: www.dongguk.edu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